

도둑질\_

# 도작(盜作)에 대하여



을 데까지 왔다. 베끼고 남이 써 준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와 버젓이 자기 거라 하니 말이다. 마광수 교수가 1992년 펴낸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개정판)』(청하)로 꽤 오래 곤욕을 치르는 동안, 나는 그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여겨 마음으로는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아니다. 그에 대한 심정적 지지를 철회한다. 도작(盜作)은 ‘표현의 자유’ 일 수 없다. 이제 마광수는 옳지 않다.

“남의 작품의 구상이나 문장 등을 마치 자기의 창작인 것처럼 함부로 자기의 작품 속에 끌어다 쓰는 일, 또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도작의 국어사전 풀이는 정도가 심한 표절로 들린다. 남의 작품을 하나도 안 고치고 자기 작품인양 내세우는 건 뭐라 부를까? 양절(攘竊)

이라는 표현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가진 국어사전은 이 말이 항목에 없다. 관련 신문기사에 따르면, 양절은 “몰래 훔친다”는 뜻인 것 같다.

## 도작과 ‘표현의 자유’

『야하다 알라송』(해냄, 2006)은 마광수 ‘시인’의 작품을 그러모은 시 전집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남이 쓴 시가 들어간 치명적 결함이 있는 시집이다. 마 교수는 그가 23년 전 가르친 학생의 작품을 몰래 훔쳐와 그의 시집에 실었다. 김이원의 「말[言]에 대하여」 도작은 거의 복사한 수준이다. 연을 구분하고 둘째 줄의 “꽃에”를 “꽃줄기에”로 늘였을 뿐, 나머지는 똑같다. 제목도 같다. 이에 대해 지방 국립대의 한 국문과 교수가 그동안 이런 일이 생기면 쉬쉬했던 문학계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인터넷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작품을 베껴 쓰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있다”(《한국일보》 2007년 1월 5일자)는 ‘인터넷 타령’은 적절치 않다. 인터넷을 널리 사용하기 전에도 그랬다.

마광수 교수가 〈연합뉴스〉 기자에게 했다는 변명은 많이 아쉽다. “모두 내 탓이다. 옛 홍익대 교지를 우연히 보다가 그때 알고 지냈던 여학생의 시가 너무 가까워 조금 고치고 그대로 썼다. …최근 제자를 만나 사실을 다 얘기했고 별 말이 없어서 양해를 한 줄로만

알았다. …시집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었는데 쓸데없는 차용이었다. …어쨌든 모두 내가 잘못해 생긴 일”(《한겨레》 2007년 1월 6일자)이다.

우선, 마 교수는 도작을 하면서 “조금 고친” 게 아니다. 조금도 안 고쳤다. 원작자가 양해를 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갖다 쓰는 건 곤란하다. 시집의 성향에 영향주지 않을 일은 왜 했나 모르겠다. 마 교수의 도작 소식을 접하고 도작을 한 것이 「말[言]에 대하여」 말고도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아내와 주고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올린」이라는 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올린」은 마 교수 홈페이지 회원의 시라고 한다. 그는 홈페이지 회원이 검토해 달라고 보낸 시를 자기 시집에 수록했다. 그러면 마광수 교수가 20대부터 2005년까지 썼다는 350여 편 가운데 마광수 ‘시인’이 손수 지은 시는 몇 작품이란 말인가?



## 미다스의 손

문학 작품만 남의 것을 그냥 가져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표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최근 불거진 표지 장정 도작은 공교롭게도 둘 다 류시화 시인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류시화 시인이 편역한 외국 시선집이 표지를 도작한 기사를 보는 인터넷 이용자의 반응이 의외였다. 댓글 대부분은 류시화 시인의 무관함을 강조

하며 그를 옹호했다.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그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지만, 독자들의 ‘동정론’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류시화 시인은 베스트셀러 저자·번역자일 뿐만 아니라 빼어난 베스트셀러 기획자다. 그에겐 시대의 흐름과 독자의 감성을 읽는 뛰어난 감각이 있다. 그렇다고 단지 감각에만 의존하진 않는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밝다. 이건 인터넷만으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원창화 옮김, 홍신문화사, 1988~1991)를 집필한 1941년에도 정보는 홍수를 이뤘다.

“보다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실제의 지식에 보다 확실하게 도달한다는 슬픈 미신이 널리 퍼져 있다. 산발적이며 서로 상관없는 사실들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된다.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사실을 보다 많이 주입받기 위해 소비되어 거의 생각할 틈조차 없다. 분명히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허구적이다. 그러나 ‘정보’만으로는 정보가 없는 것만큼이나 사고에 장애가 된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느냐보다 그것에 감식안이 있고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냐다. 이런 점에서 류시화 시인은 남다른 눈을 지녔다. 또한 그는 출판계의 미다스의 손이다. 막말로 출판사들은 그를 못 잡아 안달이다. 그가 관여하면 수십만 부 판매는 너끈하니 말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관여하는 책의 표지 장정과 본문 편집을 좌우할 힘과 능력이 있다.

그것은 앞서 그가 번역한 『달라의 라마의 행복론』(하워드 커틀러, 김영사, 2001)과 틱낫한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김영사, 2002)가 잘 보여준다. 이 두 권의 비슷한 분위기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서라기보다는 류시화의 ‘책’ 이기 때문이다. 다른 출판사들이 펴낸 류시화 번역의 틱낫한 책들을 포함하면 그런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물론 나도 이번 일에 류시화 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눈이 밝아 원천 소스를 제공한 게 무슨 잘못이라!

일이 서툰 출판사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레, 2006) 표지는 도작이 분명하다. 캐나다 사진작가 그레고리 콜버트의 작품 10점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다. “이레출판사가 사진사용 승낙을 얻으려 콜버트 쪽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거절당하자 다른 미술가에게 200만원을 주고 콜버트씨의 작품과 대상 및 구도, 색채 등이 유사한 삽화를 만들도록 했다”(〈한겨레〉 2007년 1월 8일자)는 검찰 측 설명에 나타난 출판사의 행위는 드러내 놓고 흠치기다.

신문기사가 전하는 표지의 원판 사진을 보면, 해도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싶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연말 부랴부랴 다시 만든

『인생 수업』의 표지는 출판사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일게 한다. 하기가 “표지와 본문에 실린 그림들은 그레고리 콜버트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재불화가 베아트리체가 그린 것이다”라는 콩알만한 문구로 도작을 면피하려 했으니 더 말해 뭣하랴!

류시화 편역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오래된미래, 2005)의 표지는 중국계 미국 시인 리영리(Li-Young Lee)의 『Rose』(BOA EDITION, 1986)와 바탕색만 다르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있다. 참 희한한 것은 시, 그림 할 것 없이 흠쳐서 쓸 때 거의 가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적반하장이 유분수

방귀희 <숫대문학> 발행인은 2007년 2월 3일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또 다른 시작품의 도작 사례를 전한다.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1987)의 맨 앞에 실린 「기도」를, 변영인이라는 교수가 「기도1」이라는 제목으로 베꼈다는 것이다. 변영인 교수는 1월 18일 김옥진 시인에게 메일을 보내 “김옥진 님의 책을 직접 접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김옥진 님의 좋은 시를 접하여 외웠고 오랜 시간이 지나 제 것처럼 되어 착각한 듯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표절을 시인했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숫대문학 회원인 장애인 소설가가 자신의 단편소설로 한 여고생이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수상으로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을 알았다. 그 사건은 그 여고생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라 용서를 해주고 끝났기 때문에 공론화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김옥진 시인의 표절은 우리



장애문인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장애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상에 알리기로 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를 했지만 언론은 침묵했다.”

그러면서 방귀희 발행인은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나무란다. 물론 변영인 교수가 “표절 사실을 시인해 놓고도,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도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자 마음대로 해보라며 화를” 낸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하지만 표절과 도작은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쉽게 공론화하지 않는다.

마광수 교수 건은 드물게 널리 알려진 사례다. 이번 일을 『즐거운 사라』 사태 때와 한번 비교해 보라. 죄질은 도작이 더 나쁘지만 이번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회에서 표절과 도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워낙 만연한 탓이기도 하지만, 표절과 도작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자가 소를 제기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친고죄라서 그렇기도 하다. 아무튼 표지장정 도작으로 소송을 당한 출판사는 까딱 잘못하다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 제대로 흠쳐라!

흠치려거든 제대로 흠쳐라! 안드레아 페링거, 게랄트 라이슐, 클레멘스 슈타틀바우어 이렇게 오스트리아 언론인 세 사람이 공저한 『게임 오버』(전재민·이미옥 옮김, 참술, 2000)는



제대로 슬쩍한 사례를 모았다. 정확히는 눈뜨고 도둑맞은 사연을 담았다. 이 책은 페히포겔(Pechvogel)에 관한 이야기다. 페히포겔은 Pech(불운)와 Vogel(새)을 합성한 독일어로 ‘불운한 혹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게임 오버』는 페히포겔 중에서도 운수가 역세계 사나운 사람들의 사연을 전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재능이 특출하다.

그러한 재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물을 내놨다. 하지만 실속은 다른 사람이 쟁긴다. 다시 말해, 페히포겔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페히포겔들이 특허출원하는 걸 깜박 잊거나, 법조항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아무런 의심 없이 남을 믿은 탓이다. 시대를 너무 앞지른 예도 있다.

지난해 전 세계의 가수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할아버지’ 록그룹 <롤링 스톤즈>의 드러머를 석 달 만에 집어치운 카를로 리틀을 비롯해, 23가지 사례에 나타난 페히포겔들의 삶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속설을 실감하게 한다. 그 중 극적인 사례 몇을 살펴본다.

2차 대전 막바지의 어느 태평양 전선, 미군 병사 다섯 명의 머리 위에서 폭탄이 터졌다. 하비 볼은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왜 저들이 아니고 나일까? 그들은 모두 아이가 있어. 하지만 난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고. 왜 그들이 아니고 나일까?” 1963년 12월 소도시 우스터의 하나뿐인 그래픽디자이너였던 하비는 생

명보협회사의 의뢰를 받아 스마일 마크를 디자인한다. 하비가 ‘스마일리’를 디자인한 대가는 45달러였다.

늘 기분 좋고 활달하게 웃음 짓던 하비는 1998년 7월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을 읽다가 잠시 멈칫한다. M. 프랭클린 루프라니라는 프랑스 기업가가 자신이 바로 스마일 마크의 창시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971년 스마일 마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루프라니는 그때까지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앞으로도 그만한 수입이 보장돼 있다. 미국에서 스마일 마크의 특허권을 행사하려는 루프라니는 하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스마일 마크를 디자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권리를 갖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므로 스마일은 우리의 것이며, 시장에 내다 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 그래도 괜찮아

나이키 로고의 디자인 수고비는 단돈 35달러에 불과했다. 체 게바라의 아우라가 진하게 배어 있는 사진을 찍은 쿠바의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는 체 게바라를 상징하는 사진의 주인공인데도 물질적 대가는 전혀 받지 못했다. 체 게바라의 사진을 얻으러 그를 찾아온 이탈리아 출판인 잔자코모 펠트리넬에게 그 사진을 선물한 것이 화근이었다. 체 게바라가 죽은 직후 6개월간 코르다의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는 100만장이나 팔렸다. 그 포스터의 한 귀퉁이에는 ‘에디토리얼 펠트리넬니’라는 표시가 있었다. 어느새 저작권이 펠트리넬리 출판사로 귀속된 것이다.

『게임 오버』는 함부로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그런가?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이 책은 아이디어와 그걸 활용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기도 한다. “재주는 꿈이 부리고, 잇속은 조련사가 챙긴다”는 속설처럼 말이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복을 내동댕이쳤다고 할 수 있는 폐히포켈들이 그네들의 운수사나움에 대해서 그다지 유감이 없어 보이는 것은 의아스럽다. 신기할 정도다.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선사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도둑맞은 아이디어』(김지선 옮김, 시공사, 2003)는 『게임 오버』의 속편이다. 세 공저자가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발명하거나 발견했으면서도, 정작 그거스로 돈을 벌거나 유명해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경우들을 이야기”한다. 공저자들은 이 책의 형식을 ‘리얼리티 픽션’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2,300달러에 팔아 버린 기적의 음료, 코카콜라」에선 “그 공식 연보를 답습하는 대신, 존 펌버턴이라는 사람이 암갈색 음료를 조제해 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하였다. ㉞